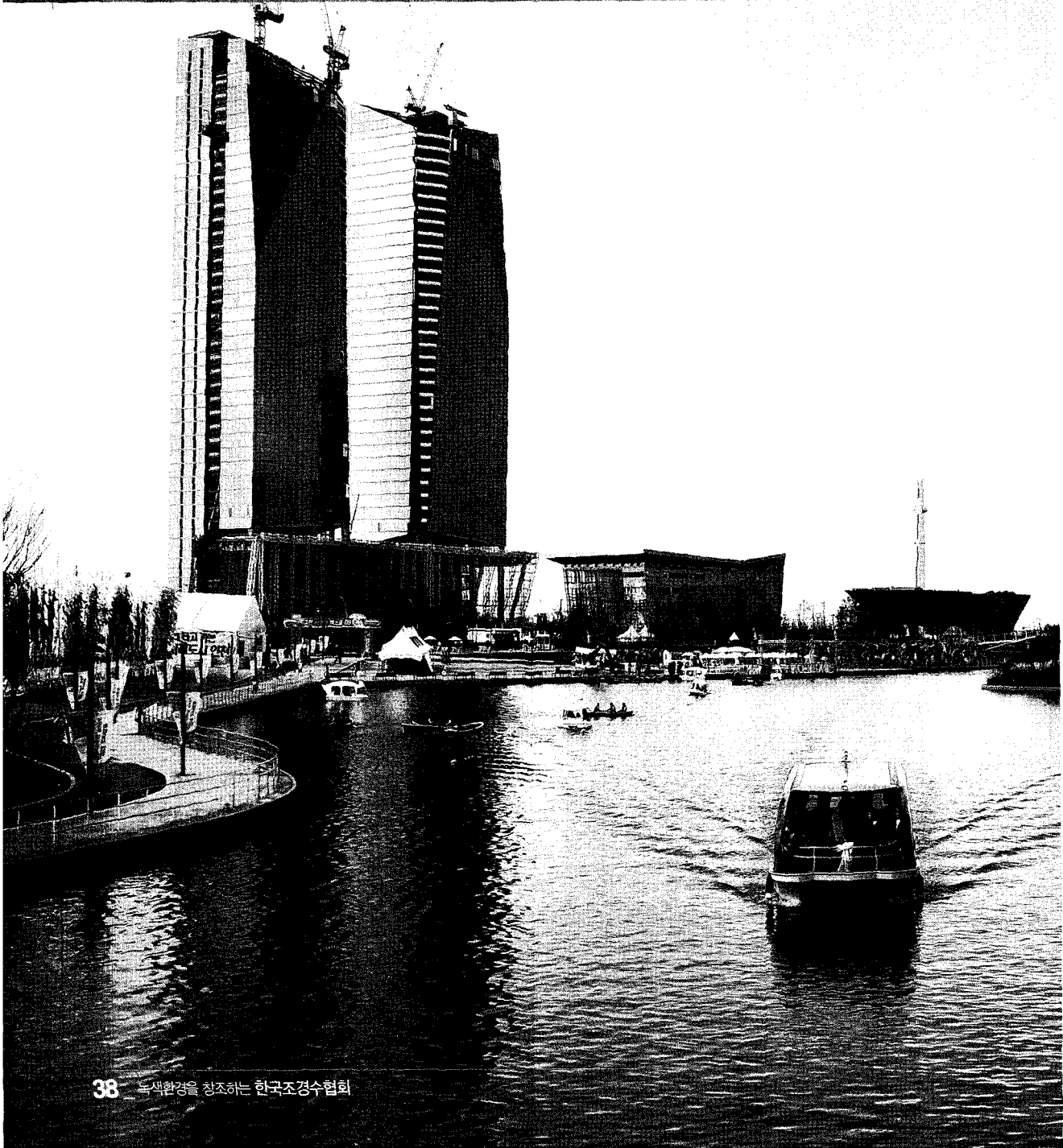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중앙공원이 2009년 9월 준공하여
일반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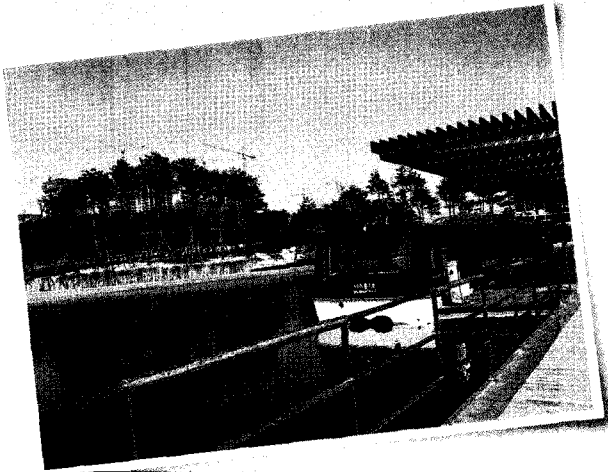
글 | 강문성 부장 (kila@kila.or.kr)

사진 | photographer_김경민 (buline@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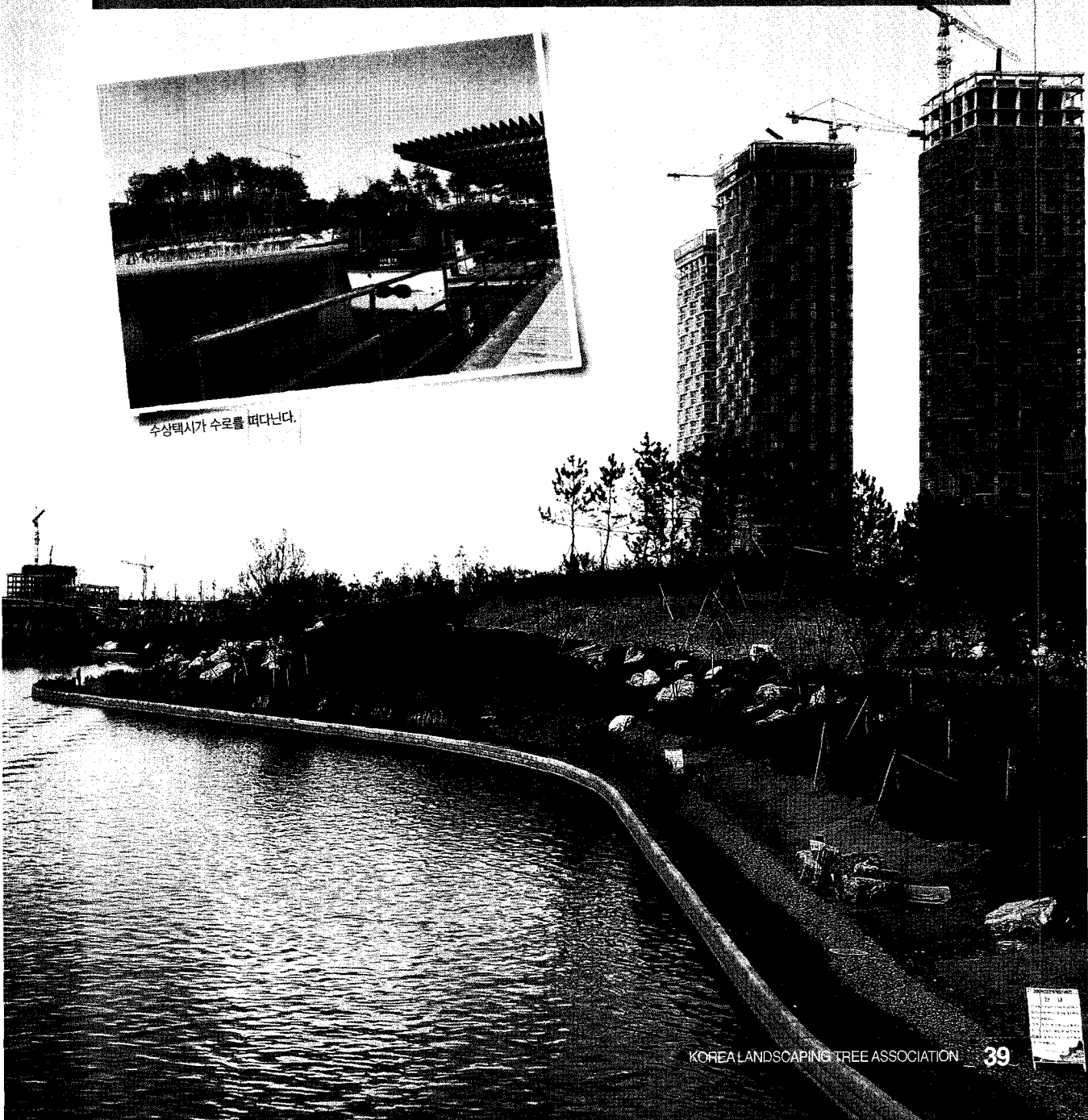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중앙공원이 2009년 9월 준공하여 일반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센트럴파크는 동고서저와 강으로 대변되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색을 담고 있으며 동고서저는 구릉이 있는 산책로와 낮은 잔디밭으로, 강은 수로로, 다도해 남해는 인공 섬이 있는 수변 공간으로 연출돼 있으며 인공으로 조성된 수로에는 수상택시가 다니고 있다. 지하에는 2,7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공원과 분리하여 조성하였고 수로주변에는 보행자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이 조성되고 추후 공원 내 박물관 및 생태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센트럴 파크는 인천광역시 송도동 24-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11,319㎡, 사업기간은 2007. 2. 1 ~ 2009. 7. 31, 사업비는 1,900억원(공원 1,200억원, 주차장 700억원)정도이며 주요시설로는 해수 수로, 수상택시 및 무빙스태이지, 지하주차장, 조각원, 정형식 정원, 초지원, 보트하우스, 비지티센터 등이 있다.



수상택시가 수로를 떠다닌다.





자연석, 대리석 정자암, 고층건물



소나무(정성) 군락



주입구에 기념식수된 소나무



한눈에 바라보이는 센트럴파크 전경

시행사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이며 설계사는 KPF, ARUP, 유신코퍼레이션, 관리 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공원팀에서 하고 있다.

이 공원의 특징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관광명 소, 도심속의 녹지공간을 염두에 두었고 인천 송 도가 수변 도시라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외국의 이국적인 풍경이 느껴지도록 다양한 형태의 고층 빌딩 숲 중앙에, 흐르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공원 을 가로지르는 수로를 조성하고 이곳을 떠다니는 수상택시의 모습이 압권이라 하겠다.

주요수종으로는 조경공사에서 주로 이용되 고 있는 상록교목인 곰솔(해송) H3.5~5.5× W1.5~2.0×R12~25 1,200여주, 소나무(적송) H5.0~8.0×R30~35 500주, 소나무(등근형) H1.5× W2.0 53주, 스트로브잣나무 H3.0~4.0 ×W1.5~2.0 400주, 주목 H3.0×W1.2 70여주 등이며 낙엽교목으로는 감나무 H3.5×R12 30 여주, 꽃아그배 H2.5×R6 40여주, 메타세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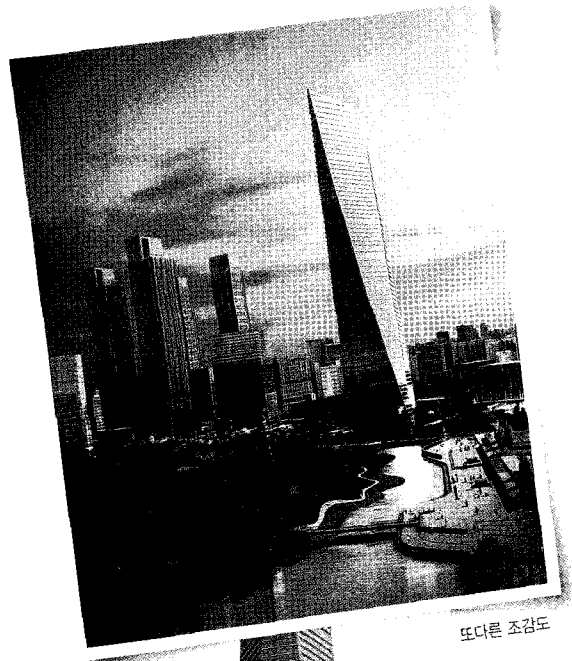
아 H4.0~6.5×B8~35 150여주, 산딸나무 H3.5×R12~15 100여주, 산뱃나무 H4.0×B12 110여주, 느티나무 H4.0×R15 320여주, 느티나무 H7.0×R50 3주, 왕뱃나무 H4.0×B10 200주 등이며 이 밖에 노각나무, 마가목, 매화나무, 산수유, 대왕참나무, 떡갈나무, 당단풍, 계수나무, 매죽나무, 백목련, 복자기, 수양버들, 자작나무, 자귀나무, 청단풍, 칠엽수 등이 식재 되었다.

관목류로는 화살나무, 철쭉, 회양목, 조팝나무, 말채나무, 매자나무, 눈향 등이 식재되었고, 초화 및 지피류로는 관중, 옥잠화, 노루오줌, 맥문동 등이 식재되었다. 요즘 추새로 볼 때 산딸나무(H3.5~4.0×R8~10, 3~5지) 다간형과 뱃나무 일부 수종의 다간형 등이 눈에 뜨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곳 센트럴파크는 대규모이고 신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느낌과 주변 일반시민들의 삶의 활력소를 충전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훌륭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경수목들만 볼 때는 요즘 민간공사에서 주도적으로 대형수목을 식재하고 우리 고유수종 등 독창적인 신수종 등을 식재하여 특징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는 관공서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공급 가능한 수종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원 스케일이나 주변 초고층 건물과의 조화로움 등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 🌳



히부식재의 노루오줌과 주변 산책로



또다른 조감도



한국전통양식의 인공섬과 교동전물이 조화롭다.